

古代社會의 婚姻形態

崔 在 錫*

- | | |
|--------------|----------------|
| 머 리 말 | 四. 百濟의 婚姻形態 |
| 一. 倭와의 婚姻 | 五. 新羅의 婚姻形態 |
| 二. 三國간의 婚姻 | 六. 後三國時代의 婚姻形態 |
| 三. 高句麗의 婚姻形態 | 맺 음 말 |

머 리 말

新羅의 婚姻이 同姓·近親婚이나 또는 異姓婚이나 하는 이른바 婚姻規制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¹⁾ 여기서는 高句麗·百濟·新羅의 三國時代로부터 統一新羅를 거쳐 後三國時代に 이르는 시대의 婚姻의 형태 즉 同時的인 配偶者(妻)가 한 사람인가 또는 두 사람 이상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코자 한다. 古代社會의 婚姻形態에 대하여 지금까지 언급된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²⁾ 本考察과는 그 시각과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의 중심과제가 혼인의 형태라 하더라도 倭와의 혼인과 三國간의 혼인도 아울러 알아보코자 한다. 그리고 新羅에 관해서는 그 史料가 高句麗나 百濟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新羅의 혼인형태는 王室의 혼인형태와 一般國民의 혼인형태를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婚姻時의 禮物이나 嫡庶의 신분차이에 대하여도 알아보코자 한다.

一. 倭와의 婚姻

高句麗·百濟와 倭(日本)와의 혼인에 대한 記事는 없고 新羅와 倭와의 혼인에 대하여는 <三國史記>에 그 기록이 세 번 나타나 있다.

A₁. 訖解尼師今 3년(312) 3월에 倭國王(日本國王)이 使臣을 보내어 아들의 혼인을 청하므로 王은 阿淩急利의 딸을 보내어 혼인시켰다.⁽³⁾

* 高麗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 (1) 崔在錫, <新羅王室의 婚姻制>, 《韓國史研究》40, 1983. 3(《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에 수록)
- (2) 今村 靉, <朝鮮に於ける一夫多妻の存在期について>, 《稻葉博士還歷記念滿鮮史論叢》, 1983
金斗憲, <朝鮮 妾制史小考>, 《震檀學報》11, 1940(《朝鮮家族制度研究》, 乙酉文化社, 1948에 수록)
金吉姬, <新羅時代 庶族에 대한 小考>, 《梨大史苑》2, 1960
- (3) 訖解尼師今三年 春三月 倭國王遣使爲子求婚 以阿淩急利女 送之(《三國史記》 권2 新羅本紀 제2 訖解尼師今)

A₂. 訖解尼師今 35년(344) 2월에 倭國이 使臣을 보내어 혼인을 청하므로 新羅에서는 먼저 女子를 出嫁시킨 것을 이유로 이를 사절하였다.⁽⁴⁾

A₃. 哀莊王 5년(804) 5월에 日本國이 使臣을 보내어 黃金 300兩을 進上하였다.⁽⁵⁾

A₄. 憲康王 5년(883) 4월에 日本國王이 使臣을 보내어 黃金 300兩과 明珠 10箇를 進上하였다.⁽⁶⁾

史料 A₁은 西紀 312년에 倭國王이 使臣을 新羅에 보내어 자기 아들인 王子의 혼인을 청하므로 王이 王女가 아니라 阿漚 벼슬의 急利의 딸을 보내어 혼인시킨 기사이며, A₂는 그로부터 32년 뒤인 西紀 344년에 倭王이 다시 혼인을 청하였는데 新羅에서는 32년 전에 女子를 出嫁시킨 것을 이유로 삼아 혼인 신청을 거절한 기사이다. 그리고 A₃과 A₄는 日本國王이 新羅朝廷에 黃金과 明珠를 進上한 기사이다.

우리는 위의 史料 A₁~A₄에 의하여 적어도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新羅와 倭와는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日本國王(倭王)이 王子의 配偶者를 청하였는데도 新羅에서는 王女가 아니라 王의 臣下의 女를 보냈으며 또 再次의 청혼에는 訖解 3년의 女子 出嫁를 이유로 들어 이를 사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관계는 新羅王室에 대한 日本國王의 黃金과 明珠의 進上記事(A₃)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⁷⁾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부언해 두고자 하는 것은 日本의 호칭에 대해서이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新羅 초기부터 孝昭王 7년(西紀 698년) 이전까지의 倭에 관한 기사가 44회나 나타나고 있는데, 炤知 麻立干 22년(西紀 500년)까지의 기사는 「日本」이라 하지 않고 한결같이 「倭」, 「倭人」, 「倭王」, 「倭國」, 「倭國王」, 「倭女王」 등으로 호칭하고 있으나, 孝昭王 7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日本」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西紀 500년에서 698년 사이에 日本이라는 國號가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더욱 정확하게는 <三國史記> 文武王 30년의 기사처럼 西紀 670년 두렵이 아닌가 한다.⁽⁸⁾

二. 三國간의 婚姻

高句麗·百濟·新羅의 三國 사이의 혼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新羅와 百濟, 新羅와 伽倻의

(4) 訖解尼師今三十五年 春二月 倭國遣使請婚 辭以女既出嫁(《三國史記》卷2 新羅本紀 제2 訖解尼師今)

(5) 哀莊王五年 春五月 日本國遣使 進黃金三百兩(《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 제10 哀莊王 5년條)

(6) 憲康王八年 夏四月 日本國王遣使 進黃金三百兩 明珠一十箇(《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제11 憲康王 八年條)

(7) 三國史記의 史料적 가치에 대하여 언급한 거의 대부분의 日人學者들은 17代 奈勿王 이전의 三國史記의 기사를 모두 造作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 兩國間的 婚姻記事도 不信하는 것이겠지만 유독 太田 亮은 이 婚姻記事를 끄집어내어 이것이 造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崔在錫, 「三國史記」 初期記錄은 과연 造作된 것인가—소위 文獻考證學에 의한 三國史記批判의 正體—), 《韓國學報》 38, 1985 참조).

(8) · 孝昭王七年 三月 日本國使至 王引見於崇禮殿(《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제8 孝昭王 7年)

· 文武王十年(670) 十二月 倭國更號日本 自言近日所出以爲名(《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30年條)

혼인기사만 〈三國史記〉에 나타나 있다.

B₁. 炤知王 15년(493) 春 3월에 百濟王 牟大(東城王)가 使臣을 보내어 청혼하니 伊伐浚 比智의 딸을 보내었다. ⁽⁹⁾

B₂. 東城王 15년(493) 3월 王은 使臣을 보내어 청혼을 하니 新羅王은 伊浚 比智의 딸을 시집보냈다. ⁽¹⁰⁾

B₃. 眞興王 14년(553) 10월에 百濟王女를娶하여 小妃로 삼았다. ⁽¹¹⁾

B₄. 聖王 31년(553) 10월에 王女를 新羅에 시집보냈다. ⁽¹²⁾

B₅. 法興王 9년(522) 3월에 伽倻國이 使臣을 보내어 청혼함으로 伊浚 比助夫의 여동생을 보냈다. ⁽¹³⁾

史料 B₁·B₂는 新羅가 百濟王인 東城王의 청혼에 응하여 伊浚의 딸을 出嫁시킨 史料이고, 史料 B₃·B₄는 新羅의 眞興王이 百濟王女를娶하여 「小妃」로 삼은 史料이다. 한번은 百濟가 新羅의 女를娶한 사례이고 또 한번은 新羅가 百濟의 女를娶한 사례인데 각각에 대하여 新羅·百濟 양측의 기록이 모두 존재할 뿐 아니라 그 기사내용이 일치하니 〈三國史記〉의 기사는 정확하다고 하겠다. 史料 B₁·B₂에서 新羅의 伊伐浚 比智의 딸을娶한 당사자가 百濟의 王이었는지 또는 百濟의 臣下였는지 알 수 없지만 兩國간의 進上 관계나 史料 B₃·B₄의 관점에서 보아 王妃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史料 B₃·B₄는 新羅의 眞興王이 百濟의 王女를娶하여 小妃를 삼은 사례이다. 眞興王이 이미 即位時에 牟梁里 英史角干의 딸 朴氏를 맞이하여 思道夫人으로 삼고 있었음으로 眞興王이 百濟王女를娶하여 삼았다는 「小妃」는 첫번째의 妻가 아니라 둘째부인으로 해석된다.

B₅는 伽倻國의 청혼에 新羅는 王女가 아니라 伊浚의 딸을 出嫁시킨 기사이다. 청혼을 한 나라는 한쪽은 百濟(B₁·B₂)이고, 다른 한쪽은 伽倻로 다르지만 이러한 청혼에 응답한 新羅의 태도는 같다고 하겠다. 즉 百濟의 청혼에도 伽倻의 청혼에도 新羅는 王女를 出嫁시킨 것이 아니라 臣下의 딸을 出嫁시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倭의 請婚에 대한 新羅의 태도와 같다고 하겠다.

三. 高句麗의 婚姻形態

高句麗 28王 가운데 두 妻를 둔 王은 대체로 7王 정도로 생각된다. 2代 瑠璃王, 3代 大武神王, 10代 山上王, 11代 東川王, 12代 中川王, 25代 平原王, 28代 寶藏王의 7王이 二妻를

(9) 炤知十五年 春三月 百濟王牟大 遣使請婚 王以伊伐浚比智女 送之(《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제3 炤知王 15年)

(10) 東城王十五年 春三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浚比智女 歸之(《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제4 東城王 15年)

(11) 眞興王十四年 冬十月 娶百濟王女 爲小妃(《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14年)

(12) 聖王三十一年 冬十月 王女歸于新羅(《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제4 聖王 31年)

(13) 法興王九年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浚比助夫之妹 送之(《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法興王 9年)

娶한 王이며 그밖에도 27代 榮留王은 二妻를 娶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C₁. 瑠璃王 3년 10월 王妃 松氏가 돌아갔음으로 王은 다시 두 여자를 繼室로 얻었는데 한 사람은 禾姬로 鵲川 사람의 딸이고 다른 한 사람은 雉姬로 漢人의 딸이다. 두 여자는 서로 다투어 화목치 못하였으므로 王은 涼谷의 東西에 二宮을 지어 따로따로 두었다.⁽¹⁴⁾

이 경우의 「繼室」이란 前妻가 사망한 뒤에 娶한 妻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妻를 모두 「繼室」이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妻의 신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C₂. (大武神王 15년) 11월에 王子 好童이 자살하였는데 好童은 王의 次妃 曷思王의 孫女의 소생으로 용모가 아름다우므로 王은 심히 그를 사랑하여 好童이라 이름하였는데 元妃는 嫡子를 두고 그로 太子를 삼을까 두려워하여 곧 王에게 다음과 같이 참소하였다(하략).⁽¹⁵⁾

여기서 우리는 大武神王이 「元妃」와 「次妃」를 두어 각각에 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元妃」, 「次妃」의 호칭이라든가 또는 王妃의 太子冊封에 대한 의구심 등에서 二妻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게 된다.

C₃. (山上王) 13년 3월 王后는 王이 酒通村女子와 상관한 것을 알고 이를 질투하여 물레군사를 내어 그를 죽이려하였다(중략). 9월에 酒通村의 女子가 生男하니 王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나에게 嗣胤을 준 것이다」하였다. 처음에 郊冢의 사건으로 그 여자를 얻게 되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름을 郊屍라 하고 그 母를 세워 「小后」로 삼았다.⁽¹⁶⁾

여기서 말하는 「小后」는 이미 살펴본 新羅時代의 「小妃」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史料 B₃ 참조). 즉 本妻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妻로 생각된다. 한편 二妻, 三妻 가운데도 一妻와 대등한 지위의 妻도 있고 그렇지 못한 妻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C₄. (東川王) 19년 3월 東海사람이 美女를 바치므로 王은 그를 後宮으로 맞아 들였다.⁽¹⁷⁾

C₅. (中川王) 4년 4월 王은 貫那夫人을 革囊에 넣어 西海에 던져버렸다. 貫那夫人은 얼굴이 아름답고 머리길이가 9尺이나 되었다. 王은 그를 사랑하여 장차 小后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王后 掾氏는 그가 王의 사랑을 독차지할까 염려하여 王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하략).⁽¹⁸⁾

이 경우 王妃의 질투로 인한 참소가 없었더라면 貫那夫人은 「小后」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전에 이미 中川王은 실제적으로 두 妻를 기느린 셈이 된다.

(14) 瑠璃明王(2代)立……(三年)冬十月 王妃松氏薨 王更娶二女以繼室 一曰禾姬 鵲川人之女也 一曰雉姬 漢人之女也 二女爭寵不相和 王於涼谷造東西二宮 各置之(《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 제1 瑠璃王 3年)

(15) 太武神王立……(十五年)冬十一月 王子好童自殺 好童王之次妃曷思王孫女所生也 顏容美麗 王甚愛之 好名好童 元妃恐奪嫡爲太子 乃讒於王(《三國史記》 권14 高句麗本紀 제2 太武神王 十五年)

(16) 山上王立……十三年 春三月 王后知王幸酒通村女 妬之 陰遣兵士殺之……秋九月 酒通村女生男 王喜曰 此天資予嗣胤也 始自郊冢之事 得以幸其母 乃名其子曰郊屍 立其母爲小后(《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 제4 山上王 13年)

(17) 東川王十九年 春三月 東海人獻美女 王納之後宮(《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제5 東川王 19年)

(18) 中川王……四年 夏四月 王以貫那夫人 置革囊投之西海 貫那夫人顏色佳置 髮長九尺 王愛之 將立以爲小后 王后掾氏恐其專寵 乃言於王曰(하략)(《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제5 中川王 4年)

C₆. 榮留王의 이름은 建武로 嬰陽王의 異母弟이다. ⁽¹⁹⁾

嬰陽王(26代)은 平原王의 長子이고 榮留王(27代)은 嬰陽王의 異母弟이므로 平原王은 二妻를 娶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C₇. 唐高宗 2년(669) 2월에 王의 庶子 安勝이 四千餘戶를 거느리고 新羅에 투항하였다. ⁽²⁰⁾

위의 7事例를 다시 整理하여 보면 同時妻 間의 地位에 差異가 나지 않는 것이 두 사례(山上王, 東川王), 實際로 두 妻를 거느린 것이 한 사례(中川王), 二妻를 娶한 可能性이 있는 것이 한 사례(平原王) 그리고 어느 範疇의 것인지 未詳한 것이 한 사례(寶藏王)이다.

四. 百濟의 婚姻形態

「三國史記」에 의하면 百濟는 31王 가운데 6代 仇首王, 15代 枕流王, 17代 阿莘王, 18代 腆支王, 31代 義慈王 등 5王이 多妻를 둔 것으로 되어 있다.

D₁. 仇首王(6代)의 第2子 比流王(11代)에 內臣佐平의 官職을 가진 庶弟 優福이 있었으니 仇首王이 二妻를 娶하였음을 알 수 있다. ⁽²¹⁾

D₂. 枕流王(15代)의 元子 阿莘王에 庶弟 洪(內臣佐平)이 있었으니 枕流王이 二妻를 娶하였음을 알 수 있다. ⁽²²⁾

D₃. 阿莘王의 子인 腆支王(18代)에 庶弟(內臣佐平) 餘信이 있었으므로 阿莘王이 二妻를 娶하였음을 알 수 있다. ⁽²³⁾

D₄. 20代 毗有王은 久爾辛王(19代)의 長子 또는 腆支王(18代)의 庶子라는 兩說이 있다. ⁽²⁴⁾

D₅. 義慈王 17년에 王은 王庶子 41명을 佐平으로 삼고 각각 食邑을 주었다. ⁽²⁵⁾

위의 5王 가운데 4王은 確實히 二妻를 娶하였으며, 18代 腆支王도 二妻를 娶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中國에서 도입된 「庶弟」 「庶子」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들이 거의 모두 높은 官職에 취임하는 것을 보면 一妻, 와 二妻 또는 妻와 妾 사이에는 그다지 位階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 榮留王 諱建武(一云成) 嬰陽王異母弟也(《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 제8 榮留王 即位)

(20) (唐高宗 德章)二年己巳二月 王之庶子安勝四千戶 投新羅(《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 제10 寶藏王)

(21) · 沙泮王 一作沙口口 仇首之子(三國遺事 王歷)

· 比流王 仇首王第二子(《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제2 比流王 即位)

· 比流王十八年 正月 以王庶弟優福 爲內臣佐平(《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제2 比流王 18年)

(22) · 阿莘王 枕流王之元子(《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제3 阿莘王 即位)

· 三年 春二月 立元子腆支爲太子 大赦 拜庶弟洪 爲內臣佐平(《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제3 阿莘王 3年)

(23) · 腆支王 梁書各映阿莘王之元子(《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제3 腆支王 即位)

· 三年 春二月 拜庶弟餘信 爲內臣佐平(同上 3年)

(24) 毗有王 久爾辛王之長子(或云 腆支王庶子 未知孰是)(《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제3 毗有王 即位)

(25) 義慈王十七年 春正月 拜王庶子四十一人爲佐平 各賜食邑(《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제6 義慈王 17年)

五. 新羅의 婚姻形態

高句麗나 百濟의 혼인에 관한 史料에 비하여 新羅의 婚姻에 관한 史料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혼인형태를 王室의 혼인형태와 왕실이 아닌 사람의 혼인형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왕실의 그것부터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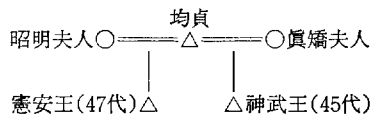
(1) 王室의 婚姻形態

一夫多妻를 맺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4사례, 一夫多妻를 맺은 것이 뚜렷한 사례가 9사례나 된다.

E₁. 11代 助賁王은 奈解王의 딸을娶하고 또 葛文王 奈音의 딸을娶하였다. 前妃가 죽은 뒤에 後妃를 취하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兩妃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²⁶⁾

E₂. 33代 聖德王은 聖德王 3년에 金元泰의 딸을 妃를 삼고 同 19년에 金順元의 딸을 王妃로 삼았다.⁽²⁷⁾

E₃. 45代 神武王과 47代 憲安王의 父인 均貞은 神武王의 生母인 眞嬌夫人을娶하고 또 47代 憲安王의 生母인 昭明夫人을娶하였다.⁽²⁸⁾



<그림> 均貞의 婚姻關係

E₄. 46代 文聖王은 文聖王 4년에 伊飡 魏昕의 딸을 妃로 삼았지만 그보다 1년 앞선 同王 3년에 唐太宗이 文聖王의 妻인 朴氏를 王妃로 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⁹⁾ 魏昕의 딸과 朴氏가 같은 사람이면 一夫一妻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一夫多妻가 되겠다.

위의 4사례는 一夫多妻(二妻)의 가능성이 있는 史料이다.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실제로 一夫多妻를 행한 사례를 알아보자.

(26) · 助賁尼師今立……妃阿爾兮夫人 奈解之王女也《三國史記》권2 新羅本紀 제2 助賁尼師今 即位)
 · 儒禮尼師今立 助賁王長子 母朴氏 葛文王奈音之女《三國史記》권2 新羅本紀 제2 儒禮尼師今 即位)

(27) · 夏五月 納乘府令薛判金元泰之女 爲妃《三國史記》권8 新羅本紀 제8 聖德王 3年)
 · 三月 納伊飡順元之女 爲王妃(同上 19年)
 · 冬十二月 昭德王妃卒(同上 23年)
 · 先妃陪昭王后 諡嚴貞 元大(阿干)之女也 後妃 占勿王后 諡昭德-順元角干之女《三國遺事》王歷)

(28) · 神武王立……元聖大王孫 均貞上大等子……母朴氏 眞嬌夫人 爲憲穆太后《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 제10 神武王 即位)
 · 憲安王立……神武王之異母弟也 母昭明夫人 宣康王之女《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제11 憲安王 即位)

(29) · 文聖王三年 秋七月 唐太宗……册王爲……新羅王 妻朴氏爲王妃《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제11 文聖王 3年)
 · 文聖王四年 春三月 納伊飡魏昕之女 爲妃(同上 4年)

F₁. 24代 眞興王은 朴氏 思道夫人으로 妃를 삼았으면서도(즉위년) 同 14년 10월 百濟王女를 娶하여 小妃로 삼았다. ⁽³⁰⁾

F₂. 太宗(29代)에게 太子 法敏과 庶子 車得令·文王 등이 있었다고 하고, 또한 文虎王(文武王)에 庶弟 車得이 있었다 하니 太宗이 二妻나 그 이상의 妻를 娶한 것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³¹⁾

F₃. 34代 孝成王은 同王 3년에 伊淩 順元의 딸 惠明을 王妃로 삼고 同 4년에 永宗의 딸을 後宮으로 들여 지극히 총애하였다. ⁽³²⁾

F₄. 36代 惠恭王은 伊淩 維誠之女를 元妃로 삼고 伊淩 金璋之女를 次妃로 삼았다. ⁽³³⁾

F₅. 40代 哀莊王은 同 3년 4월에 阿淩 金宙碧의 딸을 後宮으로 맞아들였다. ⁽³⁴⁾

F₆. 48代 景文王은 즉위년에 金氏 寧花夫人을 妃로 삼았고 그 2년 뒤인 景文王 3년에 寧花夫人의 弟를 맞아 들여 次妃로 삼았다. ⁽³⁵⁾ 이러한 혼인형태는 이른바 姊妹多妻婚이다.

F₇. 49代 憲康王의 庶子 曉는 眞聖王(51代) 때 太子로 封해졌으며 眞聖王 다음에 王位(孝恭王)에 즉위하였다. ⁽³⁶⁾

F₈. 52代 孝恭王은 孝恭王 3년에 伊淩 又謙의 딸을 맞아 妃로 삼았으나 그 뒤 賤妾에 빠져 政事를 돌보지 않았다고 하니 一夫多妻를 娶하였음을 알 수 있다. ⁽³⁷⁾

F₉. 55代 景哀王이 妃嬪과 宴娛를 하였으며 또 甄萱이 景哀王妃와 妃妾을 亂淫하였다고 하니 景哀王이 多妻를 娶한 것을 알 수 있다. ⁽³⁸⁾

위의 사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두번째의 配偶者를 「次妃」, 「小妃」, 「後宮」, 「賤妾」, 「妾」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次妃」는 첫번째의 配偶者인 王妃, 元妃, 妃와 거의 지

(30) · 夫人朴氏 牟梁里 英史角干之女(《三國遺事》 王歷 眞興王)

· 妃朴氏 思道夫人(《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即位)

· 眞興王十四年 冬十月 娶百濟王女 爲小妃(同上 14年)

(31) · 太子法敏 角干仁問 角干文王……皆文姬之所出也……庶子曰皆知文敏干 車得令公 馬得阿干 并女五人(《三國遺事》 卷1 太宗春秋公條)

· 太宗武烈王二年 三月……立元子法敏 爲太子 庶子文王爲伊淩(《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太宗武烈王 2年)

· 文武王五年 春二月 伊淩文王卒 以王子禮葬之(《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5年)

· 王一日 召庶弟車得公曰 汝愛家宰均理百官 平章四海(《三國遺事》 卷2 文虎王 法敏)

(32) · 納伊淩順元女惠明 爲妃(《三國史記》 新羅本紀 孝成王 3年)

· 永宗女 入後宮 王絕愛之(同上 4年)

(33) 元妃新寶王后 伊淩維誠之女 次妃 伊淩金璋之女(《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 제9 惠恭王 10年)

(34) 哀莊王三年 夏四月 以阿淩金宙碧女 入後宮(《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 제10 哀莊王 3年)

(35) · 妃金氏 寧花夫人(《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제11 景文王 即位)

· 三年 十一月 納寧花夫人弟 爲次妃(同上 3年條)

(36) · 孝恭王立 諱曉 憲康王之庶子 母金氏(《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 제12 孝恭王 即位)

· 眞聖王九年 冬十月 立憲康王庶子曉 爲太子(《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제11 眞聖王 9年)

(37) · 孝恭王三年 春三月 納伊淩又謙之女爲妃(《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 제12 孝恭王 3年)

· 十五年 王嬖於賤妾 不恤(同上 15年)

(38) 景哀王四……年王與妃嬪宗戚 遊鮑石亭宴娛…不覺賊兵至 倉猝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王與妃妾數人 在後宮……強淫王妃 從其下亂其妃妾(《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 제12 景哀王 4年 11月)

위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출신의 신분이 어느 정도 높지 않으면 次妃가 될 수 없었다는 사정은 海島人의 女를 「次妃」로 맞이하려는 文聖王(46代)의 뜻이 결국 좌절되었던 사실에서도⁽³⁹⁾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小妃」와 「後宮」은 그 지위가 「次妃」에 비하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첫번째 妻의 지위와 두번째 妻의 지위가 대등한 경우도 있으며 두번째 妻가 첫번째 妻에 비하여 그 지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賤妾은 우선 출생신분에 의해서도 다른 妻와 신분 및 지위에서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多妻를 쫓하는 王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喪妻를 하여도 亡妻를 잊지 못하여 再娶를 하지 않는 王도 있다. 42代 興德王은 王妃 章和夫人이 돌아가자 群臣들이 妃를 再納할 것을 청하였지만 亡妻를 생각한 나머지 群臣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끝으로 王室의 혼인 과정과 예물 그리고 離婚 때 離婚王妃에게 주는 예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31代 神文王은 無子이고 父의 亂에 連坐된 王妃(太子時 妃로 맞았음)를 出宮시킨 뒤 一吉濱 金欽運의 少女를 맞아 들였는데 그 과정과 예물은 다음과 같다.⁽⁴²⁾

㉔ 먼저 어떤 處女(一吉濱 金欽運의 少女)를 王妃(夫人)로 삼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王妃가 될 사람의 父의 官階는 7等級인 一吉濱이다. 王妃의 父의 官階가 대개는 2等級(伊濱) 이상임에 비하면 그 官階가 7等級이라는 것은 아주 낮은 것이다.

㉕ 두 사람(伊濱 文歆과 波珍濱 三光)을 新婦 집에 보내서 혼인가일을 정한다. 혼인가일을 정하기 위하여 新婦 집에 과견되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서 그 중 대표격인 사람의 官階는 2等級의 官職(伊濱)으로 7等級인 王妃의 父의 官階보다 훨씬 높다.

㉖ 사람(大阿濱 智常)을 시켜 「納采」를 보낸다. 納采 송부를 위하여 신부집에 과견되는 사람의 官階는 5等級으로 혼인가일의 결정을 위하여 과견된 사람의 官階보다는 낮지만 王妃의 父의 官階보다는 높다.

㉗ 禮物은 幣帛이 15車, 米·酒·油·蜜·醬·鼓·脯·醢 등이 135車, 租穀이 150車였다.

한편 聖德王(30代)은 成貞王后를 出宮시키는데도 彩緞 500匹, 田地 200結, 租穀 一萬石, 家宅 1匹 등 막대한 재산을 주었다.⁽⁴³⁾

위에서 婚姻이나 離婚 때 新羅 왕실은 막대한 재물을 예물이나 또는 위자료로 소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39) 文聖王七年 春三月 欲娶清海嶺大使弓福女爲次妃 朝臣諫曰 夫婦之道 人之大倫也 故 夏以塗山與殷以嫫氏 周以褒女以滅 晉以驪姬亂則 國之存亡 於是乎在 其可不慎乎 今弓福海島人也 其女豈可以配王室乎 王從之(《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卷11 文聖王 7年)

(40) 妻와 妾, 先妻와 後妻의 地位關係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p. 146).

(41) 妃章和夫人卒 追封爲定穆王后 王思不能忘 悵然不樂 羣臣表請再納妃 王曰 隻鳥有喪匹之悲 況失良匹 何忍無情 遽再娶乎 遂不從 亦不親近女侍(《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 卷10 興德王 即位)

(42)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卷8 神文王 3年條

(43)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卷8 聖德王 15年條

(2) 一般의 婚姻形態

위에서 우리는 왕실의 혼인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는데 여기서는 왕실 이외의 혼인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G₁. 79세에 葬한 金庾信이 庶子 軍勝阿飡이 있었다고 하니⁽⁴⁴⁾ 金庾信이 多妻하였음을 알 수 있다.

G₂. 金庾信의 孫인 允中에게 庶孫 巖이 있었다고 하니⁽⁴⁵⁾ 允中의 아들 또는 그 자신이 多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G₃. 文武王(30代) 때의 村吏 安吉에게 妻妾 3인이 있었다.⁽⁴⁶⁾

G₄.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719년)에는⁽⁴⁷⁾ 金志誠(重阿飡)이 죽은 父(一吉飡 仁章)·母(觀肖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弟·姉·前妻·後妻·庶兄·妹가 합심하여 阿彌陀像 一軀와 彌勒像 一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金仁章, 金志誠의 父子 兩代가 모두 二妻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庶兄」은 죽은 金仁章(父)의 二妻의 아들이고 前妻, 後妻는 金志誠의 前妻와 後妻이다. 新羅時代에는 前妻가 死亡한 뒤에 娶한 妻만을 後妻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번째 妻와 두번째 妻가 모두 생존해 있어도 「前妻」·「後妻」로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먼저 娶한 생존한 妻가 前妻이고 두번째 娶한 생존한 妻가 後妻로 불리운다. 이러한 호칭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첫번째 妻와 두번째 妻의 신분·지위는 거의 대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비단 일반국민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살펴본 왕실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아들의 前妻 古老里와 後妻 阿好里가 함께 죽은 媼父母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佛像을 세운 것이 주목된다. 위의 造像記에서 佛像을 세우는

〈表〉 嫡子와 庶子の 官階比較

亡 考	金 仁 章	一吉飡(官階 7級)
本 人(子)	金 志 誠	重阿飡(官階 6級)
弟	良 誠	小 舍(官階 13級)
庶 兄	及 漢	一吉飡(官階 7級)
	一 懂	薩 飡(官階 8級)
	聰 敬	大 舍(官階 12級)

(44) 至秋七月一日 薨于私第之正寢 享年七十有九……生子五人 長曰三光伊飡 次元途薛判 次元貞海干 次長耳大阿飡 次元望大阿飡 女子四人 又庶子軍勝阿飡 失其母姓氏(《三國史記》卷43 列傳3 金庾信下)

(45) 有舊將金庾信孫允中……允中庶孫巖 性聰敏 好習方術(《三國史記》卷43 列傳3 金庾信下)

(46) 公著緇衣 把琵琶 爲居士形……至於武珍州 巡行里門 州吏安吉 見是異人 邀致其家 盡情供億 至夜安吉喚妻妾三人曰……(《三國遺事》卷2 文虎王 法敏)

(47) 開元七年己未 二月十五日 重阿飡金志誠 奉爲亡考仁章一吉飡 亡妣觀肖里 敬造甘山寺一所石阿彌陀像一軀石彌勒像一軀……弟良誠小舍 玄度師 姉古巴里 前妻古老里 後妻阿好里 兼庶兄及漢一吉飡 一懂薩飡 聰敬大舍 姉首盼買里(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

데 주도적 역할을 한 金志誠 자신과 그의 弟, 庶弟, 亡父 등의 官階를 비교해 보면 庶兄이 받은 관계가 다른 형제들 보다 결코 뒤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官階上으로도 嫡庶의 구분은 없다고 보겠다.⁽⁴⁸⁾

六. 後三國時代의 婚姻形態

H₁. 後百濟의 甄萱의 父 阿慈个는 두 妻를娶하였는데 「第一妻」는 上院夫人이고 「第二妻」는 南院夫人으로서 5子 1女를 두었다.⁽⁴⁹⁾

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첫번째의 妻와 두번째의 妻의 호칭상에도 차별이 없을뿐만 아니라 그 子女도 어느 妻가 낳았는지 구별하지 않았다.

H₂. 阿慈个의 아들 甄萱도 妻妾이 많아서 아들 10여명을 두었다고 하니⁽⁵⁰⁾ 二妻나 그 이상의 妻를娶한 것을 알 수 있다.

H₃. 高(句)麗 太祖는 <三國史記>에는 「多娶妻」하였다고 하고 <三國遺事>에는 神成王后 金氏 외에 25王妃를娶하였다고 하였다.⁽⁵¹⁾

이처럼 後三國時代에도 그 이전의 統一新羅時代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왕실에서는 多妻를娶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실 이외에 있어서는 史料가 없어서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新羅時代나 高麗時代에 있어서처럼 일반국민들도 상층계급의 사람이거나 부유한 사람은 多妻를娶한 것으로 생각한다.

맺 음 말

우리는 위에서 高句麗·百濟·新羅·後三國時代의 혼인형태를 알아보기 앞서 倭와의 혼인관계와 三國間의 혼인관계를 알아보았다. 사료를 통하여 古代社會의 혼인형태에 관해 알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高句麗·百濟·新羅·後三國時代에 王室에서는 一夫多妻(二妻나 二妻 이상)를娶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2) 高句麗, 百濟에 관해서는 왕실 기록만 남아 있지만 新羅는 왕실이 아닌 귀족이나 일반관료의 혼인에 관한 사료도 남아 있어서 이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귀족이나 부유한 계층

(48) 嫡庶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점은 이미 金吉姬에 의하여 언급된 바 있다(<新羅時代 庶族에 대한 小考>, 《梨大史苑》 2, 1960).

(49) 父阿慈个 以農自活……慈个之弟(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三國遺事》 紀異 2 後百濟甄萱傳)

(50) 萱多妻妾 有子十餘人(《三國遺事》 紀異 2 後百濟甄萱傳)

(51) 太祖娶之 是爲神成王后金氏……此外二十五妃 主中不載 金氏之事(《三國遺事》 紀異 2 金傳大王條)

의 사람도 一夫多妻를娶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3) 여러 妻 사이의 지위관계 즉 첫번째 妻와 그 밖의 妻와의 지위관계는 대체로 세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 것 같다.

첫째, 첫번째 妻와 그 밖의 妻의 지위가 비등한 것인데 이것은 다음의 네가지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㉔ 妃·次妃, 元妃·次妃, 第一妻·第二妻, 前妻·後妻 등의 예와 같이 호칭의 차이가 없고, ㉕ 太宗(新羅: 30代)의 庶子인 伊湊 文王이 죽었을 때 主¹子²의 禮로 葬事지냈으며, ㉖ 憲康王(新羅: 49代)의 庶子 燒가 庶子의 稱으로 王(孝恭王)이 되었으며, ㉗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에 따르면 兄弟와 庶兄弟 사이의 官階의 등급에 차이가 없었다.

두번째 범주의 것은 첫번째 妻 또는 지위가 등등한 複數의 妻(王妃)에 비하여 그 지위가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妻이다. 「小妃」, 「小后」, 또는 「後宮」 등으로 불리운 妻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세번째의 범주의 전형적인 형태는 「賤妾」으로 出身身分이 賤한 妻로서 위의 두 범주에 비하면 그 지위가 현격히 떨어진다고 보인다.

(4) 끝으로 庶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庶」字가 들어가는 용어는 「庶子」, 「庶弟」, 「庶兄」의 세 종류로 그 사용시대를 보면 百濟는 比流王부터 사용하였지만 新羅에서는 統一期에 들어와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太宗武烈王 이후부터 「庶子」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庶子, 庶兄, 庶弟의 용어의 출현시기는 墓制 변화 시기와 상응한다. 즉 新羅의 墓制(東枕)가 高句麗·百濟의 영향 내지는 中國本土 墓制(北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統一新羅期부터라고 한다.⁽⁵³⁾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庶」字가 붙는 사람의 지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위와 거의 동등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庶子, 庶兄, 庶弟의 용어를 中國에서 도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는 中國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父系親의 子孫을 의미하는 中國의 用語인 「族」이 中國에서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때는 朝鮮 초기까지도 中國과는 달리 異姓親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⁵⁴⁾ 이러한 사정은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庶子」, 「庶弟」, 「庶孫」, 「庶兄」 등은 儒敎의인 一夫一妻 사상이 엄격한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嫡子」, 「嫡孫」, 「嫡兄弟」와 확연히 구별되지만⁽⁵⁵⁾ 지위가 거의 동등한 여러 명의 妻가 존재하는 古代社會와 高麗社會에서는 누구를 「庶子」로 호칭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도 中國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新羅 太宗의 아들 文王의 예에서처럼 庶子라 호칭할 때도 있고 또는 호칭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52) 百濟에서는 두번째 妻의 호칭이 보이지 않는다.

(53) 金元龍, 〈新羅墓制에 관한 一考察〉, 《新羅伽耶文化》1輯, 1966

(54) 崔在錫, 〈上揭書〉, pp. 287-289 및 pp. 595-598을 참조할 것

(55) 一夫一妻制의 확립 과정에 관하여는 前揭書, pp. 223-224를 참조할 것